

월드컵서 한수 배웠다...친절해진 K리그 VAR

판독상황 이미지 넣어 설명 더해
최종판단 사유도 전광판에 올려
'VAR 축구행동' 모호한 해석 과제

K리그는 발 빠르게 비디오판독 시스템(VAR)을 도입한 프로리그 중 하나다. 그만큼 변화에도 상당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팬과 미디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설명을 곁들이기로 했다. 사상 처음으로 VAR을 시행한 2018러시아월드컵 흐름에 최대한 맞춰가기 위함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월드컵 휴식기인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각 구단 감독·심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K리그 경기력 향상과 APT(실제경기시간)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향후 VAR 운영방식도 공유했다.

●친절한 K리그

지난해부터 올 시즌 전반기까지 VAR이 진행되면 경기장 전광판에는 'VAR 판독중'이라는 문구만 띄웠다. 이는 VAR 도입을 결정한 국제축구평의회(IFAB)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왜 VAR을 진행하는지, 정확한 상황은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프로연맹은 월드컵 개막을



K리그가 팬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VAR에 변화를 가미한다. 올 시즌 후반기부터는 'VAR 판독중'이라는 문구에 더해 좀더 정확한 판독 상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기다렸다. 세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선 월드컵만한 무대가 없었다. 프로연맹 실무진은 각 구단 사장·단장들과 함께 러시아를 찾아 국제축구연맹(FIFA)의 VAR 운영을 직접 살폈다.

여기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최소 4가지 판독 상황(페널티킥·득점·퇴장·신원 오인)을 안내하는 23가지 이미지를 기존의 'VAR 판독중'이라는 문구 하단에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주심이 V

AR을 알리고 필드 리뷰를 시작하면 기본 이미지가 노출되고, 최종 판단을 내리면 마지막 판정과 사유를 동시에 띄우는 형태다.

당초 K리그는 단순한 문구 이미지뿐 아니라 관련 경기영상도 전광판 스크린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모색했으나 일부 경기장들의 시설이 낙후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팬과 언론은 물론, 코

칭스태프에게도 대기심이 VAR을 비롯한 판정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연 최소화

심판들은 한층 엄격해진다. 불경함과 관계없는 상황에서 상대의 안전, 목을 가격하면 기존에는 경고조치를 했지만 이제는 레드카드를 받는다. 불경합 과정에서도 발바닥이 상대의 신체로 향하는 의도가 명백하면 퇴장 당한다. 경기지연 행위도 가차 없다. 부상을 가장한 시뮬레이션 액션도, 교체지연도, 프리킥 방해 및 골키퍼 지연 모두 옐로카드 대상이다.

심판의 경기운영도 훨씬 빨라진다. 위험 지역이 아니면 프리킥 위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신속히 재개하며 파울 장면 이후 경기가 재개됐을 때 경고 선수를 카드에 기입하기 위해 시간을 끌지 않는다. 특히 모호한 상황에서 경기재개는 어드밴티지를 부여한다.

다만, VAR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은 의견이 엇갈린다. 선수나 벤치가 특정 상황에서 주심에게 손짓으로 VAR 시행을 촉구할 때 과하면 경고가 주어지지만 강도가 약하면 용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함'의 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월드컵에서도 똑같이 VAR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적용되는 경우는 제각각이었다.

남양현 기자 yoshike3@donga.com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모호한 처지였다. 벨기에 코치로 조국 프랑스와의 러시아월드컵 4강전을 지켜본 티에리 앙리의 11일(한국시간)이 그랬다. 키오프를 앞두고 박수를 치며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 | AP뉴시스

울지도 웃지도 못한 '벨기에 코치' 앙리

"반대편 벨기에 벤치에 앉은 프랑스 슈타에겐 어색할만이 흘렀다."(영국 더 선) 프랑스와 벨기에가 2018러시아월드컵 결승행을 놓고 격돌한 11일(한국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 경기장에는 양국 감독과 선수만족이나 주목받은 한 코치가 있었다. 티에리 앙리(41)였다.

프랑스 스타플레이어 출신으로서 1998프랑스월드컵 우승을 이끈 앙리는 벨기에 코치직을 맡고 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앙리는 자국 후배들과 월드컵 4강전에서 맞붙게 됐다.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은 당연히 두 나라 사이에 놓인 앙리에 게 쏠렸다.

앙리는 평소처럼 벨기에 선수단을 이끌고 경기장에 나타났다. 키오프에 앞서서는 20년 전 월드컵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디디에 데샹(50) 프랑스 감독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그러나 반가운 해후 뒤부터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만이 존재했다. 앙리는 승리를 위해 90분간 분주히 움직였다. 한 손에 들린 작전판을 들여다보며 상황에 몰두했고, 때로는 벨기에 선수들과 은밀히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0-0으로 맞선 후반 6분. 프랑스의 코너킥 상황에서 사무엘 움티티(25·바르셀로나) 헤딩골이 터졌다. 평소 같으면 패자를 불렀을 앙리는 금세 표정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벨기에에는 동점을 만들지 못했고, 앙리는 굳은 표정으로 벨기에의 패배를 지켜보아야 했다.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힌 선배 앞에서 피블레 군단 후배들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였다. 경기 직후 앙리와 마주한 선수들은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한 명씩 번갈아가며 선배를 꼭 끌어안았다. 앙리 역시 진한 포옹으로 후배들의 결승행을 축하했다. 프랑스 골키퍼 위고 요리스(32·토트넘)는 경기 직후 소감에서 대선배를 향한 존경심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앙리)는 마음이 찢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떠나 그는 프랑스인이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018~2019시즌부터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활약한다. 9년 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에 몸담은 그는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사진출처 | 마르카 홈페이지

'1억 유로' 호날두 유벤투스행...이적시장 지각변동?

(이적료)

연봉 394억원에 사인·계약기간 4년
세리에A행에 스타들 연쇄이동 전망

세계최고의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가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 유벤투스로 이적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1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팀의 간판스타였던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이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적료는 1억 유로(약 13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호날두는 유벤투스와 4년 계약을 맺었으며 3000만유로(약 394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 홈페이지에 "팬들에게 감사한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낸 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다.

호날두는 2018러시아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이 16강전에서 탈락해 일찌감치 짐을 싸지만, 우승후보 중 하나였던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4골을 터트리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바 있다.

세계 최정상급의 스타답게 호날두의 이적 여부는 월드컵 토너먼트 이상의 관심을 끌었다. 유벤투스 이적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스페인, 이탈리아 언론들은 그에 대한 소식을 끊임없이 전했다. BBC는 호날두의 이적이 공식 발표되자마자 '33세의 호날두에게 거액을 안긴 유벤투스는 좋은 거래를 한 것인가'라는 질문까지 진행하고 있다.

호날두의 이적으로 유럽축구 이적시장은 연쇄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의 득점원을 잃은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수급이 시급하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레알 마드리드가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아스는 에당 자르(첼시), 킬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맹) 등을 호날두 대체자 후보에 올렸다. 또한 호날두의 입단으로 입지가 좁아진 유벤투스의 공격수 곤살로 이과인은 첼시(잉글랜드)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 1명의 이적이 프리메라리가(스페인), 세리에A(이탈리아), 프리미어리그(잉글랜드) 등 유럽 빅리그 이적시장의 판도를 흔들며 버린 셈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월드컵선수 '0명'인 포항 조현우의 대구가 부럽다

2018러시아월드컵 휴식기를 마치고 재개한 'KEB하나은행 K리그 2018'에서 월드컵 특수를 누리는 팀은 대구FC다. 골키퍼 조현우(27)가 생애 첫 월드컵에서 신들린 선방을 펼치며 일약 국민적 스타로 떠오른 덕분에 8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후반기 첫 홈경기에는 평균관중의 5배를 뛰어넘는 1만2925명의 관중이 자리했다.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는 대구를 부럽게 쳐다보는 곳이 있다. 포항 스틸러스다. 대구와 인접한 지역을 연고로 하는 포항은 이번에도 월드컵 효과를 보기 어렵게 됐다. 이유는 하나. 태극전사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포항은 2014브라질월드컵에 이어 이번 역시 국가대표 배출에 실패했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 첫 홈경기였던 11일 FC서울전은 포항의 이러한 현실을 잘 대변해주는 느낌이었다. 평일 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월드컵의 열기는 쉽게 체감할 수 없었다.

포항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월드컵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대표 소속선수가 없다 보니 이를 활용한 마케팅도 펼치기 어렵다. 대구가 조현우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부러울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그저 입맛만 다실 수는 없는 실정이다. 포항은 올 시즌 총관중 숫자가 줄어들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시점을 놓고 비교했을 때 평균관중이 크게 감소했다. 기존 1만명 정도에서 현재 8000여명대로 줄어든 상태다. 3000명대 소규모 관중 경기도 늘었다. 구단 자체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타계책을 강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리그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포항. 한때 무수한 스타플레이어를 배출하며 높은 인기를 구가했던 명문구단의 씩씩한 단면이다. 포항 | 고봉준 기자